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9월1일부터 100일 '대장정'

'F1 특별법' 등 통과 주목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범여-한나라 '李 국감' 힘겨루기...예산 '살바 싸움'도 만만치 않을 듯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월 1일 개회해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각 정당에 매년 그려왔던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치르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참여정부 공과 평가 등 급작스러운 현안이 산적해 있어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전남지역과 밀접한 법안의 회기 내 통과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 정기국회는 연말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축수 운영'이 불가피해 내실있는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정기회 집회일인 다음달 1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 3일 오후 개회식을 겸해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내 경선 때문에 원내대표 선출을 연기했다. 범여권도 통합과 경선준비 작업에 몰두하면서 아직 세부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기국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을지조차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일정상 다음달 추석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과 및 차명 재산 의혹,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차용사인 BKK의 추가조각 사건 연루 및 부당산투기 의혹,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상임위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이 후보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 북방경제협력선(NLL)

문제, 문화관광위에서는 기자실 통제할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야당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이후 이뤄지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범여권의 '공세'와 한나라당의 '방어'가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5년 '성적'을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 따기 경쟁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연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여서 정부와 지역구 의원들간 예산 '살바싸움'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시민 김효석 원내대표는 26일 이번 정기국회 운영전략에 대해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겨 차질없는 국회 운영을 할 것"이라며 "다만 대선 때문에 단축 운영이 불가피해 집중적으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아프간 피랍 사태... 인질 석방 합의 이뤘나

宋외교 사우디 방문... "뭔가 있다"

AIP 오보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 정부가 탈레반측과 인질의 전원 석방에 합의했다고 지난 25일 아프간 이슬람 프레스(AIP)가 보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탈레반측과 계속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AIP의 보도에 대해 일단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런 정부의 신중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AIP의 보도는 여러 측면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다.

남은 인질 19명의 석방 합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에 의해 이뤄졌다는 부분이 우선 눈에 띈다.

이와 관련 증동을 방관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압둘라 국왕을 예방,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송 장관이 장기화되고 있는 인질사태 해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사우디아의 압둘라 국왕을 찾았을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권에서 말썽 역할을 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을 움직이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

'확인된 바 없다'는 우리 정부의 반응이 AIP보도를 완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압둘라 국왕과 회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AIP의 보도가 오보일 여지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 AIP가 전한 인질석방 합의 내용이 그 중 하나다. 인질 전원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측은 수 주일내에 아프간 주둔군과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요원들을 철수시킨다는 게 AIP가 보도한 탈레반측과의 합의 내용이다.

탈레반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질-수감자 맞교환' 조건에 대한 언급은 AIP의 보도 내용에 빠져있다.

다시 말하면 탈레반이 이 요구를 돌연 철회했다는 것이 되는데 탈레반이 인질협상 과정에서 보여온 태도에 비춰보면 선뜻 이

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 정부와 탈레반 그리고 아프간 정부가 이면합의를 했을 개연성은 열려있다. 이를 타면 탈레반이 대외적으로 이 요구를 철회하고 실제로는 아프간 정부가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을 앞두고 특사 형식으로 탈레반 수감자를 풀어줄 경우 아프간과 한국 정부, 탈레반이 모두 나름의 실리를 챙길 수 있으며 그동안 이 같은 시나리오가 최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는 달리 탈레반 측에 '물리적 대가'를 지불키로 이면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연합뉴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北 수해 사망 454명, 실종 156명"

북한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최소 454명이 사망하고 156명이 실종, 4천35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전했다.

OCHA는 26일 북한 당국과 국제기구가 집계한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에서 "이번 폭우로 북한의 6개 도, 92개 군이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 주민 43만 6천명 이상이 수해를 당했고 16만 9천561명이 집을 잃었다고 집계했

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4만 463채가 완파됐으며 6만 7천566채가 부분 파괴, 13만 3천732채가 침수됐다.

또 22만 3천381ha의 곡물 경작지가 피해를 봤는데 이 가운데 논은 전체 면적의 20%, 옥수수밭은 15% 이상 유실 또는 매몰, 침수돼 올해 예상 수확량에서 100만t의 곡물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수해 후 각종 전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중앙통계국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수해로 6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힐, DJ에 서한 "아프간 문제 타개 위해 모든 지원 제공"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 인질들의 안전 상태는 우리들의 최우선 관심사이며, 이 비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인의 안전과 구출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힐 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주한 미 대

사관을 통해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서한에서 "부시 대통령께서 답신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한국인의 고통과 슬픔에 진심으로 동정을 표한다"며 "우리는 한국의 강력한 동맹으로서 (탈레반이)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를 살해한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개 및 규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고시학원 advertisement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featuring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and '9월 3일'.

제5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모집 advertisement with details on application dates, fees, and exam content.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Case No.), 신청인 (Applicant), and 목적 (Purpose). Lists various public service exam cases.

KALTOUR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travel packages, including '제주도 2박3일' and '제주도 3박4일' options.